

SOCIETY

2025년 4월 7일 월요일

오늘의 날씨

☀️ 예보 06:11 달출 13:35
☁️ 예전 18:59 달진 03:22



광주	☀️	5~22
목포	☀️	7~19
여수	☀️	8~17
순천	☀️	4~22
구례	☀️	2~23
광주	☹️	2~22
임도	☀️	6~20
흑산도	☀️	9~18
고흥	☀️	2~20
진도	☀️	5~18

목포	밀물 (고)	10:15 / 22:34
	썰물 (저)	02:36 / 16:13
여수	밀물 (고)	05:49 / 18:20
	썰물 (저)	12:34 / --:--

6월 3일 '모의평가' 예정

대선일정 따라 변경될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오는 6월 3일로 예정된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평가)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이 생겼다. 6월 정치권과 교육계에 따르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됨에 따라 당장 6월 모의평가 일정부터 변동 가능성이 생겼다. 현행법상 대통령 선거일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가 될 전망이다. 선거일은 월요일과 화요일인 5월 26~27일, 6월 2~3일 중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6월 3일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문제는 이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6월 모의평가가 예정돼 있다. 일단 대선 투표일과 6월 모의평가는 동시에 치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일과 6월 모의평가 날짜가 겹치면 유권자인 수험생이 투표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 교육부 역시 일정이 겹치면 6월 모의평가 날짜를 변경한다는 입장이다. 6월 모의평가 일정이 변경되면 수험생으로선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광양 연안에 항유고래 출몰

만년필 ○·전남 광양 연안에 항유고래가 나타나 해경이 구조에 나서. 6일 전남 여수해양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9시48분 광양항 연안에 대형 고래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해경은 광양피출소와 여수해경 구조대, 해양재단구조대 구조대원을 현장에 급파해. 항유고래로 추정되는 약 15m에 달하는 고래는 발견 당시 머리 부분에 붉힌 상처가 있었지만 건강 상태는 양호했다고. 신고 접수 4시간 뒤인 오후 1시 30분께 고래는 점차 깊은 해역으로 이동해. 여수=송원근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발표된 4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생방송으로 탄핵심판 선고 지켜본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비상계엄은 위헌... 민주주의·헌법 교육의 장”

尹 탄핵, 그 순간-성덕고 민주시민교육

황석하 역사교사, 헌법·민주주의·삼권분립 수업 생방송 시청...2학년 33명 '파면 선고'에 환호성

“교과서에서 배운 헌법과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역사적인 현장을 친구들과 함께 지켜볼 수 있어 뜻 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진 지난 4일 오전 10시40분 광주 광산구 장덕동 성덕고등학교 5층 AI수업실.

이날 황석하 역사교사는 고등학교 2학년 33명을 대상으로 '계엄과 현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현장' 학교 민주시민교육 수업을 진행했다.

이날 수업은 황 교사의 군주국, 입헌군주국, 공화정,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시작됐다. 수업은 민주주의에 대

한 이야기, 탄핵 선고 영상 시청, 생각 작성하기 순으로 진행됐다.

황 교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2항) 등을 이야기하며 헌법정신, 민주주의, 삼권분립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또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된 지역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하는 계엄'이라고 비상계엄에 대해 정의했다.

곧바로 학생들은 민주주의 의미,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노력에 대해 발표한 뒤



지난 4일 광주 광산구 성덕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선고되자 박수치고 있다.

필기도구를 손에 쥐며 '민주주의의 가치가 지켜지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번 선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등 5개 질문지에 대해 작성했다.

학생들은 '국민의 노력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 '독재하지 않고 투표 등으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비상계엄은 위헌이다' 등 다양한 생각을 적어냈다.

오전 11시가 가까워지자 황 교사는 학생들에게 헌법재판소 선고 TV 생중계를

보여줬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 전문을 읽어가자 학생들은 두 손을 맞잡거나 코와 안경을 매만지며 TV 화면을 응시했다.

문 권한대행은 선고 시작 22분 만에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말했다.

그 순간 교실 내부는 환호성과 박수가

터지는 등 역사적인 순간을 즐겼다. 일부 학생들은 '역사의 산증인', '당연한 선고'라고 함박소리를 냈다.

TV에서 '파면'이라는 단어를 듣고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학생도 있었고, 휴대전화로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드디어 탄핵됐다"는 소식을 알리기도 했다.

강금조·이연수양(18·여)은 "교과서에서만 배운 비상계엄이 직접 겪어보니 실감이 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TV 실시간으로 보니 무서웠다"며 "헌법재판소 선고가 빨리 되지 않아 걱정했지만 윤석열이 파면돼 후련하다"고 안도했다.

이어 "억압받지 않고 국민이 자유로워야 한다"며 "역사의 현장을 지켜봐 영광이고 뜻깊다. 민주주의가 바로 선 나라가 되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서수현군(18)은 "정치적인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어 탄핵안이 인용될 줄 알았다"며 "살면서 독특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잊혀지지 않는 슬픔... “사고 재발 방지·안전한 사회 구축 염원”

12·29 제주항공 참사 100일 추모제

유가족·김영록 전남지사 등 200명 참석 '엄숙한 분위기' 사무처는 그리움에 오열...진상규명·책임자 처벌 등 촉구

“우리의 삶은 100일 전 참사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해 12월29일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희생자를 하늘로 떠나보낸 지 100여일이 지난 가운데 이들을 기리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100일 추모제'가 열렸다.

지난 5일 오전 전남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 추모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공항은 유가족들의 발걸음이 이어졌고, 이들의 얼굴에는 떠나간 이들을 잊지 못하는 그리움과 사무침으로 가득했다. 1층에서 2층으로 향하는 계단과 난간에는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메시지가 적힌 손편지와 메모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다.

이날 추모제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고광안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희생자 유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했고, 국

민의례, 희생자 애도 묵념, 헌화, 추모사, 추모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공항 내부는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추모제가 시작되자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거나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군 채 흐느끼는 유가족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다.

침울한 표정으로 참석한 유가족 중 일부는 아직도 현실이 믿기지 않은 듯 가족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슬픔은 추모공연과 함께 극에 달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이들은 '내 딸 보고 싶다', '아직도 못 믿겠다' 등의 말을 하며 간신히 참아왔던 슬픔을 쏟아내며 오열하는 모습은 주위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추모사에 나선 박한신 유가족 대표는 “깊은 슬픔과 그리움을 안고 100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날의 충격과 아픔



지난 5일 오전 전남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에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100일 추모제'가 열렸다.

은 여전히 있다"며 "사랑하는 이들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고 그리움은 더욱 깊어져만 간다"고 흐느끼며 말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참사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는 여전히 묻고 있다. 부디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아픔이 잊되지 않게기를 바란다”며 “이들의 희생에 대한민국의 안전과 현주소를 점검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밀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대표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이 부디 하늘에서는 아픔 없이 편안하길 바란다. 우리는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며 “먼 훗날 다시 만날 때 서로에게 수고했다고 웃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1시간 가량 진행된 추모식이 마무리된 후에도 유가족들은 공항을 떠나지 못

하고 분향소를 찾아 헌화와 분향했다.

일부 유가족들은 분향소에 비치된 영정사진을 보자 오열하며 자리에 주저앉는 모습도 보였다.

한편, 지난해 12월29일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2216편이 동체 착륙한 뒤 공항 시설물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181명 탑승자 중 179명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윤용성 기자 yoi1404@gwangnam.co.kr